



“安全保健의식 고취에 힘쓸터”

産業安全기술 개발에 총력경주

『산업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산업 구조의 확대와 공정의 자동화추세는 고도의 안전기술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함으로써 예기치 못했던 각종 산업재해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재해강도도 심화되고 있어 國家的차원에서 산업안전관리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韓國産業安全學會 金元甲회장(한국산업안전공단 부설 산업안전연구원장)은 勞動部가 발표한 災害統計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88년 한해 동안 발생한 재해사건은 14만2천여건에 2만7천여명의 불구자와 2천여명의 사망자를 냈으며 1조5천여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다.

이는 美國 등 선진국보다 4배, 이웃 日本 보다는 3배,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대만·싱가폴 등 신흥공업국가들에 비해서도 2배 정도 높은 災害발생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더군다나 국제노동기구(ILO)의 통계에서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재율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밝혀져 그동안 안전문제는 도외시한 채 경제발전에만 급급해 온 우리로서는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불명예를 씻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겠다는 지적한다.

『이같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제아무리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했다고는 하지만 산업기술의 후진성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해도 과



金元甲회장

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아까운 人命은 물론 고도기술 및 기능보유인력을 보호해야 함은 人道的 견지에서나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지난 70년대초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안전보건청을 설치, 행정적 기반을 다져놓았고 일본만 하더라도 73년에 산업안전위생법을 제정, 노동성에 안전국을 설치하고 이를 전담할 재해방지단체를 설립하여 오늘날과 같은 기반을 확고히 했으며 영국, 불란서, 독일 등 유럽국가들도 70년대초에 이미 안전체제를 재정비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10년이나 늦은 82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고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과가 설치됨으로써 산업안전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金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제정되므로

써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를 거두었지만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전 산업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감소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면서 무엇보다도 산업재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제고는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는 無災害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꾀해 나가고 근로자는 자신의 신체보호라는 측면에서 안전보전의식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사실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생산성향상에만 치중한 나머지 안전설비 및 시설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지요. 근로자들의 요구가 점차 임금위주에서 근로조건개선 등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근로자들의 욕구가 아니더라도 안전이 기업의 번영을 증진시키는 길이라는 인식하에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金회장은 安全관리란 모든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災害의 원인과 상태를 기술적으로 밝혀내고 그에 대한 예방조치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업무인 만큼 人的·物的·환경적 위험요소로부터 야기되는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정부당국에서는 사업장의 불안정한 환경 및 시설의 철저한 감독은 물론 법적·제도적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산업안전기금」의 설치 등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등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金회장은 질병에 있어서 발병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가능하듯이 산업재해에 있어서도 과학적이고 정확한 원인 구명과 적절한 대책 없이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려우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기술개발활동을 이끌어갈 전문기관의 육성과 그를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보급 등이 이 분야 발전의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의 육성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험기계설비 및 유해물질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재해예방기법의 개발보급과 함께 이들 업무를 전담할 산업안전관리자의 확보 또한 당면과제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런 현안 해결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지난 86년 韓國産業安全學會를 설립, 우리나라 산업안전기술개발의 선도적 역할은 물론 각종 산업안전시책을 개발 보급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는 것.

『잘 아시다시피 산업안전학회는 산업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산업재해에 대한 문제점의 도출과 그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의 개발 보급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조사 분석사업을 비롯 기술개발, 학술연구, 교재발간과 기술지도자문 등의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金회장은 安全學분야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전실한 기반구축에 힘써온 학회는 앞으로 △사고원인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安全技術의 개발 △産·學협동연구체제에 의한 근원적인 예방기반의 구축 △산업기술의 변화에 대응하는 과학적인 安全管理技法의 개발 △선진국의 안전기술정보교류 및 보급 등을 통해 우리나라 産災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다짐한다.

『산업기술의 고도화는 먼저 안전의 확보에서만 가능합니다. 안전이 바로 나의 생명을 지키고 가정의 행복과 기업의 번영을 증진시키는 길임을 명심하고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와 정부당국도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갈때 비로소 선진국대열에 올라 설 수 있을 것입니다.』 <權仁記>